

터·한 호수 전설에 나타난 문화적 함의

조홍윤*

목 차

1. 서론
 2. 한국의 <장자못>과 터키의 <호수가 된 마을> 전설, 그 서사와 의미
 3. 양자의 서사에 형상화 된 ‘악의 원형’과 그 문화적 함의
 4. 결론
-

1. 서론

악인이 가득한 집이나 마을이 벌을 받아 사라졌다는 전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계적 광포설화의 한 유형이다. 기독교 경전에 등장하여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진 바 있는 “소돔과 고모라(Sodom and Gommorrah)”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 유형 전설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심판자의 도래 - 악(惡)의 확인 - 선자에 대한 구원과 금기(禁忌)의 제시 - 금기 위반 - 멸망’의 순차 구조를 그 유형적 틀로 지니고 있다. 터키와 한국의 경우에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전설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왔는데, 양자 간에는 특히 그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유향불이 떨어져 도시를 불태우고 뒤를 돌아본 여인이 소금기둥으로 변하였다고 전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와 달리, 두 나라의 경우는 공히 벌을 받은 마을이나 집이 호수가 되었으며 뒤를 돌아본 사람은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터·한 양자간에는 동일한 서사 구조에 더하여 ‘심판의 방법’과 ‘금기 위반자의 형상’, ‘현존하는 증거물의 형태’와 같은 서사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국 문화의 강력한 공통기반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것은 양자가 지닌 일관된 차이점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장자의 집’¹이라는 하나의 가구 단위로 제시되는 것에 반하여 터키에서는 ‘마을’이라는 확장된 생활공동체가 제시된다. 심판의 이유가 되는 ‘집단의 악(惡)’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침해와 모욕’인 것에 반해 터키의 경우에는 ‘타자에 대한 배척’을 문제삼고 있다. 말하자면, “악(惡)이란 무엇인가?”라는 원형(原型, archetype)적 문제에 관하여, 양자는 ‘악의 주체’와 ‘악행의 내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 이스타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¹ 한국 설화 속에 등장하는 ‘장자(長者)’는 주로 큰 부자나 지역의 권력자를 지칭한다.

이 유형의 전설에 속하는 한국의 <장자못>과 터키의 <호수가 된 마을>²을 비교 고찰하여 양국 향유자들의 인식상에 자리잡은 ‘악의 원형’ 간 차이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필시 양자의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빚어진 것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동북아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과 민족의 대 이동을 감행하였던 터키 민족의 인식적 변별점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한국의 <장자못>과 터키의 <호수가 된 마을> 전설, 그 서사와 의미

전설은 ‘현존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믿기 어려운 허구적 내용이라는 상반된 현상들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병치하여 사실과 허구,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향유자들의 일상적 통념을 전복하고 낯선 눈으로 세상을 재인식하게끔 한다. 이때 그와 같은 현실과 환상의 충돌에 의해 전설의 미적 특질인 비극성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환상세계의 무한성이 현실의 고정성과 대비되면서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극명하게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³ 다시 말해, 전설을 통해 인간은 그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새삼 자각하면서 그와 같은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상태를 회구하게 된다. 보편적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식적 움직임을 촉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설의 원형이 지닌 기능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장자못>과 터키의 <호수가 된 마을>이 그 자신의 환상과 현실을 통해 자각하도록 하는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식적 움직임을 취하도록 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장자못>과 <호수가 된 마을>의 서사를 개관하고 그 맥락에 맞추어 각각의 상징들을 분석함으로써 두 전설의 의미와 문화적 특질에 대해 논의를 넓혀가기로 한다.

한국의 <장자못>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 광포설화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지 조사를 통해 집대성된 구비문학 자료집 『한국구비문학대계』⁴를 통해 60편 가량의 각편이 보고되어 있으며, 여타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더하면 100편을 상회하는 각편이 알려져 있다. 이들 각편에 공통된 서사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² 이는 해당 유형의 전설을 지칭하는 터키의 대표 유형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자가 임시로 명명한 것이다.

³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23쪽 참조.

⁴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집 1~82권, 부록(유형 분류 및 색인) 1~3권, 1980~1982.

- A. 옛날 한 마을에 못된 장자가 살았다.
- B. 어느 날 장자집에 도승(道僧)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는데, 장자는 도승의 바람에 똥(혹은 두엄)을 퍼 넣고는 쫓아냈다.
- C. 장자의 며느리가 몰래 도승에게 다가와 사죄하며 쌀을 시주하자, 도승은 ‘이 집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니 소중한 이만 대동하여 집을 나오라.’고 하였다.
- D. 며느리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아기(혹은 개 한 마리)만 대동하여 문밖에 나오자, 도승은 ‘나를 따라 뒷산을 넘어가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 E. 도승을 따라 산을 넘던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뇌성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장자집에 벼락이 치고 폭우가 내려 호수가 되어 있었고,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돌로 굳어 버렸다.
- F. 옛날 장자집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큰 호수가 있고, 호수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어귀에는 며느리 바위가 남아 있다.

터키의 <호수가 된 마을> 전설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본 연구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터키 북부 볼루(Bolu)에 위치한 “차아호(Çağa Gölü)”에 관한 전설, 중부지역의 코니아(Konya) 카라프나르(Karapınar) 인근에 위치한 호수인 “아즈호(Acı Göl)”에 관한 전설, 중부지역 카파도키아(Kapadokya) 네브셰히르(Nevşehir) 인근에 위치한 “나를르호(Narlı Göl)”에 관한 전설 등이다.⁵ 이들 전설의 서사를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다.
- B. 그 마을에 늙은 데르비쉬(derviş)가 찾아왔으나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를 쫓아냈다.
- C. 남편이 없이 아이와 함께 사는 가난한 여인만이 데르비쉬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예배를 부탁했다.
- D. 데르비쉬가 여인에게 아이와 함께 마을을 당장 떠나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 E. 마을을 떠나던 여인은 뒤에서 들려오는 붕괴음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마을이 가라앉아 호수로 변하고 있었으며, 뒤를 돌아본 여인은 돌이 되었다.
- F. 옛날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큰 호수가 있고, 호수 인근에는 여인이 변한 바위가 남아 있다.

<장자못>의 서사 속에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은 도승과 장자이다. ‘도승 : 장자’는 곧

⁵ 해당 전설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이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집을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신뢰할 만한 자료집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며, 학생들의 도움으로 그 서사와 상징을 파악하여 우선 논고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추후 신뢰할 만한 자료집을 찾거나 현지 조사를 통해 논의에 활용할만한 원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선 : 악’, ‘이상 : 현실’ 이라는 의미의 대립을 이룬다. 이때 며느리는 장자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지상적 존재이면서 장자의 악을 지양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존재이다. 그녀는 ‘시주’ 행위를 통해 그 존재적 위상을 장자의 집안이라는 현실에서부터 도승의 이상 세계로 이동시킬 기회를 얻게 되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는 금기를 어김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 굳어진 인간 존재의 상징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는 <호수가 된 마을>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테르비쉬 : 장자’의 대립이 곧 ‘선 : 악’, ‘이상 : 현실’의 대립을 의미화하고 있다. 그 경계에 놓인 가난한 여인 또한 <장자못>의 며느리와 유사한 형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상 <장자못>과 <호수가 된 마을> 전설에서 향유자들에게 더 큰 충격과 울림을 주는 이미지는 돌로 굳어진 며느리와 가난한 여인의 형상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선한 이들에게 가해진 징벌의 형상이 이 이야기를 환기하는 증거물로서 전해지게 되었는가. <장자못>의 경우 이에 착목한 연구자들로부터 여러 해석이 제시되었으니, 간추리면 ‘신적 질서에 따른 응보’로 보는 관점⁶과, ‘신의 징벌이 아니라 스스로 굳어버린 것’이라는 관점⁷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 중 유력한 해석은 후자의 것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나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이상적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공포(뇌성)와 그에 의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 앉아 굳어버리는(돌이 된 며느리) 인간 보편의 인식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어느 순간 꿈꾸던 삶, 이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맞아 그 길로 나아가면서도, ‘기존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필연적 공포에 직면하게 되며, 그러한 공포가 천둥이 치듯 뇌리를 스칠 때에 그 고비(산마루)를 넘지 못하고 회귀하거나 멈추어버리곤 한다. 그렇게 이상적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멈추어버린 인간이 다시는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 앉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혹은 주변인의 삶을 통해 슬하게 목격하곤 하는 것이다. 이에 돌로 굳어버린 며느리의 형상은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적시하는 동시에, 공포에 잠식되어 멈추어 서지 말고 결연히 그 고개를 넘어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호수가 된 마을> 전설의 가난한 여인이 표상하는 바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포에 짓눌려 부정적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경계를 넘어 이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두 이야기는 그와 같은 원형적 문제의식을 선과 악,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멈추어버린 두 여인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⁶ 대표적으로는 천혜숙, 「장자못 전설 재고」, 『한피 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김선자,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장자못 전설과 함호(陷湖) 전설을 대상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1, 중국어문학연구회, 1999가 있다.

⁷ 대표적으로는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 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회, 2007이 있다.

3. 양자의 서사에 형상화 된 ‘악의 원형’과 그 문화적 함의

양국 호수전설의 서사와 의미에 대하여는 대략적이거나 논의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장자’와 ‘마을 사람들’로 표상되는 ‘악의 원형’에 관한 것이다. <장자못>의 며느리와 <호수가 된 마을>의 가난한 여인은 그 인물 형상이 표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두 이야기 속에서 신벌(神罰)의 대상이 되는 악행의 내용은 유의미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양국의 ‘악의 원형’⁸에 대한 인식적 변별점과 그에 반영된 문화적 특질을 드러낼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자못>에 제시된 장자의 멸망은 악에 대한 응보로서 당연시된다. 시주를 하기 싫다면 하지 않으면 될 것을 굳이 바람에 똥을 퍼 넣어 그 안에 든 것까지 못쓰게 만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를 넘어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분명 벌을 받아 마땅한 악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장자의 집이 물에 잠기게 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때의 ‘물’은 ‘정화(淨化)’와 ‘치유(治癒)’, ‘재생(再生)’, ‘원초(原初)의 상태’를 상징하는 원형 이미지로서 제시된다.⁹ 그렇다면 장자의 집은 세계의 정화와 재생을 위해 물로 씻겨야 할 악의 공간이며, 그곳이 물로 덮임으로써 세계는 원초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에 장자의 악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화되어야 할 악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자못> 전설에 함의 된 악에 대한 원형 인식은 농업 공동체로서 정착 생활을 했던 당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대를 거쳐 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주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지역공동체의 유지’야 말로 건강한 사회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였으리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산이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것, 그렇게 하여 그들의 지역 공동체를 분열상으로 이끌어 가는 행위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호수가 된 마을> 전설에서 제시된 마을의 멸망 또한 악의 정화를 의미하며, 마을 사람들의 악행 역시 터키 민족에게 있어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화되어야 할 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원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장자못>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호수가 된 마을>에서 문제시 되는 악은 ‘타자에 대한 배척’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마을’이라는 공동의 생활 집단 전체가 어느 날 찾아 온 외부자를 배척함으로써

⁸ 본고에서 논의되는 ‘악’이란 절대적인 가치개념으로서의 그것은 아니다. 절대적 악 관념은 종교적 교리나 사상적·정치적 지배 계급에 의해 주도된 바가 큰 반면, 설화 속의 악 관념은 좀 더 민중의 심층 의식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 이에 설화 속의 악 관념이야말로 생활 민중이 자신들의 삶을 저해하는 중대 위협으로 인식 하였던 보다 실제적인 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좀 더 가깝게 포착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⁹ Mircea Eliade, *Images et symboles. Essais sur le symbolisme magico-religieux*, Paris, Gallimard, 1952,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글방, 1998, 165~174쪽 참조.

세계의 질서에 의해 소멸 당하게 된다.¹⁰ ‘타자에 대한 배척’이 곧 ‘세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악’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악 관념은 동북아시아로부터 실크로드를 횡단하여 유라시아의 정 중앙에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하였던 터키 민족의 문화적 배경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유목민들의 사회가 농경민들의 사회에 비하여 더욱 강한 결속력을 지님으로써 타자를 향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할 것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 유목민들의 삶이란 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비하지 못한 채로 길 위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 유지되는 양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길 위에서 술한 타자와 조우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삶을 이어간 터키 민족에게 있어서, 타자의 존재는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에 타자를 배척하는 인식과 태도야말로 그들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양국의 호수전설에 나타난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 예로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이사 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간 사람은 그 지역 선주민들의 집마다 음식을 들고 찾아가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문화는 새로이 한 지역 공동체에 소속되게 된 구성원이 기존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항상성 유지가 관건인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항상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은 적지 반감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 신규 유입 인원에 대한 선주민들의 시선은 다분히 의혹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그러한 시선을 돌려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아내는 역할은 새로이 지역에 진입한 구성원에게 짐지워진다.

반면 터키에서는 새로이 이사를 온 집에 지역 선주민들이 음식을 가져와 인사를 하는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 새로운 지역 환경에 위축되었을 신규 유입 인원을 위로하며 그들의 공동체에 한시라도 빨리 융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구비하지 못한 채로 길 위에 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은 새로운 지식이나 물자, 노동력과 군사력의 유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새 구성원을 한시라도 빨리 기존의 집단에 융화시켜 그가 가진 새로운 에너지를 공동의 활력으로 환원해낼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역할은 기존의 구성원들에게 짐지워지는 것이다. 비록 양국 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을 경유하며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이처럼 그들의 인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원형인식, 양국 호수전설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악의 원형’이 지닌 차이가 현재까지도 양국 문화의 의미 있는 차이를 빚어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¹⁰ <장자못>이나 <호수가 된 마을> 모두 도승, 데르비쉬 등 종교적 인물이 악의 심판자로서 도래하지만, 이는 그들의 도래로 인해 촉발되는 징벌이 세계의 신성한 질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종교적인 ‘불경(不敬)’을 문제삼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유사한 서사구조와 인물 형상을 지닌 터키와 한국의 광포전설, <호수가 된 마을>과 <장자못>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빚어내는 원형 인식상의 변별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유사한 두 전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악의 원형’이 농업 공동체로서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갔던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유목민족으로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이동을 통해 길 위의 삶을 살았던 터키 민족의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료 접근성의 문제와 지면의 한계로 충분한 정의와 논박의 과정을 기술할 수 없었던 만큼 소략하고 거친 논의가 진행되었다. 완성된 논의를 위해 나아갈 길이 먼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빌어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추후에 보다 적실한 논의로 빈 곳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고를 일단락한다.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집 1~82권, 부록(유형 분류 및 색인) 1~3권, 1980~1982.

천혜숙, 「장자못 전설 재고」, 『한피 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김선자,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 장자못 전설과 함호(陷湖) 전설을 대상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1, 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 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Mircea Eliade, *Images et symboles. Essais sur le symbolisme magico-religieux*, Paris, Gallimard, 1952,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글방, 1998, 165~174쪽 참조.

[Abstract]

A Research on the Cultural Implications in Turkish and Korean Legends of Lake

CHO Hongyoun

Istanbul Univ.

Hongyoun.cho@istanbul.edu.tr

Some folktales mention “A house or village full of wicked people was punished and became a lake.” It is a form of the widespread Legends that have a power of transmission on a global scale. These legends, which have the following narrative structure : Arrival of the Judge - Identification of Evil - Salvation to the Prophet and Presentation of Taboo - Violation of Taboo – Destruction, show the fate of universal human, which are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marginal world symbolized by ‘evil’, as an image of ‘those who have stopped on the floor’. This implies that the archetypal consciousness of universal humanity about the human being’s necessity to move towards a life of higher value and the cognitive risks to be inevitable in the process. This is why these stories can have a global power of transmission.

As the legend has this structure, Korean legend “*Jangjamot*” and Turkish legend “*The Village becoming a lake*” are passed down. Both of them clearly show the formal typologies in terms of the narrative, the symbol, and the in-depth meaning. Therefore, it is a concrete sample to confirm the archetypal cognitive of the two people with pursuing universal values and possessing strong psycho-cultural similarities. But the more interesting parts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oth forms of legends show very similar narrative structures and figure images, but also have distinct differences in their details. From these differences, it is expected to confirm the cultural differentiations between Koreans and Turkish culture.

Keywords : folktale, Legend, Jangjamot, The Village becoming a lake, archetype, evil